

중앙승가대 '봉은사 재정지원 사찰 지정 요구' 배경은?

지원금 축소 '위기감' 특성화 전략 세워야

서울 봉은사를 재정지원사찰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하며 봉은사에서 집단기도 및 단식에 들어갔던 중앙승가대 비상대책위(공동위원장 각 명·법공, 이하 비대위)가 11월 15일 중단을 결정했다. 집단기도를 시작한 지 9일, 단식을 시작한지 6일만이다.

△왜 집단행동에 나섰나?

비대위가 집단행동을 벌인 직접적 배경은 연간 18억 8000여만 원의 중단 지원금마저 줄어들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이는 중앙승가대 전체 예산의 60%에 육박하는 액수다. 하지만 이 예산은 '문화재관람료 특별 분담금'에서

현재 중앙승가대의 전체학원은

293명이며 1년 예산은 약 32억6천만 원이다. 종단의 지원금과 중앙승가대 전체예산은 최근 3년간 거의 변화 없이 발전도 담보상 태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주지 교체시기에 봉은사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

무원으로부터 중앙승가대이전특별회계 중 남은 8억원을 지원받기로 약속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내년에도 특별회계 14억원을 이월해 지원받기로 했으며, 특별회계가 종료되는 내년 이후에도 중앙승가대 운영비로 전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중앙총회에 상정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봉은사 새 주지 명진 스님이 '최대한의 협조'를 약속해 연간 6억원 정도 소요되는 학원들에 대한 무상교육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같은 지원책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앙승가대에 얽혀있는 근원적인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여전히 '불씨'를 안고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중앙승가대 김용철 교수는 "중앙승가대 문제는 승가교육 전반의 문제"라며 "승가교육에 대한 새로운 목표를 제시할 때가 왔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김 교수는 "중앙승가대 정체성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즉 중등 기본교육 기관을 중앙승가대 중심으로 일원화하거나, 중앙승가대를 대학원 중심의 전문교육기관으로 전환하는 등 중앙승가대만의 특성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종단의 한 관계자는 "대중의 힘을 동원해 문제를 푸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후유증을 남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중단지원 3년간 제자리 ... 발전 담보상태

'지원 약속' 얻었지만 '미봉책' 지적도

'대학원 중심 인재양성 기관으로' 여론

지출되는 것이다. 문화재관람료 폐지가 기정사실화되는 과정에서 안정적 재정지원 방안이 필요했던 것이다.

여기에는 그동안 누적된 불만이 터져 나왔다. 주장도 나오고 있다. 설립이념에서처럼 '중앙승가대학교는 조계종이 설립한 현대적 승려교육기관'이지만 선사상과 불교의식을 전공한 교수가 없다. 최근 사미(세) 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들을 지도할 수행전담 교수도 없다. 대학원생 연구와 숙박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용 공간도 필요하며, 4개 부설 연구소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돼야 한다.

하러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11월 6일 비대위측은 "차기 주지 임명은 총무원장스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7일 총무원 집행부와 만난 자리에서 "차기 주지 임명 보류"를 요구했고, 8일 새 주지에 명진 스님이 임명되자 "임명 철회"를 주장했다. 봉은사가 정치적 거간물이 돼서는 안 된다는 논리였지만, 사실상 주지 임명권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셈이었다.

△해결 방안은?

비대위는 이번 일을 계기로 총

이날 제결식에서 흥기삼 총장과 흥승기 사장은 불교방송 인직원 위탁교육과 동국대 학생 인턴십 상호 교류, 출판물 등 학술정보 교환, 영상 관련 사업 협조 등을 골자로 한 상호 교류협력사업 협정서에 서명했다. 또 교류협력의 실질적인 운영 방안을 담은 운영협약서도 체결했

다. 이에 따라 불교방송은 매년 2명의 직원을 위탁교육 연수자로 동국대학교에 추천하고, 동국대학교는 등록금의 일정 부분을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또 동국대학교는 매년 5명 내외의 학생을 선발해 불교방송에 근무시킬 수 있다. 강지연 기자

불교방송-동국대

상호 교류협정 체결

불교방송(사장 흥승기)과 동국대학교(총장 흥기삼)가 11월 16일 동국대 본관 정학회의실에서 상호 교류협정 체결식을 가졌다.



불교여성개발원이 11월 16~18일 서울 법원사 불일미술관에서 개최한 '제1회 불교여성인재양성기금마련 바자회'에서 참석자들이 물품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고영배 기자

불교여성개발원, 기금마련 바자 성료

불교여성개발원(원장 김인숙)이 11월 16~18일 서울 법원사 불일미술관에서 개최한 '제1회 불교여성인재양성기금마련 바자회'가 성료됐다.

바자회에서는 누비장 김해자씨의 누비복과 정경연 홍익대 교수의 판화 등 기증한 작품과 (주)삼지와 서일농원 등 기업체에서 후원한 물품 700여 점이 판매됐다.

바자 수익금은 여성리더십교육·불교여성아카데미·행복한 가정지원 프로그램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한편 11월 16일 법원사에서 열린 창립 6주년 기념법회에서 4대 원장에 연임된 김인숙 원장은 "법인 설립과 여성불자 네트워크 형성, 후원회 조직 등 불교여성개발원의 인적·물적 토대 구축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여수령 기자



11월 14일 열린 조계사 삼존불 점안식에서 참석자들이 부처님전에 헌화하고 있다. 사진=고영배 기자

조계사 삼존불 새로 모셨다

'한국불교 1번지' 조계사가 대웅전 부처님을 새로 모셨다.

11월 14일 열린 점안식은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비롯해 원로회의 수석부회장 지혜, 차석부회장 보성 스님과 원로의원 도원·지종·활안·녹원·원명·동춘·진제·초우·혜정 스님, 조계사 신도 등 사부대중이 조계사 앞마당을 가득 메웠다.

점안식에서 조계사 주지 원담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삼존불 봉안 및 점안 법회 이후로 조계사 사부대

중이 기도와 수행에 더욱 정진해 부처님 가르침에 가까이 다가가고, 나아가 온 세상이 정도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치사에서 "한국불교의 중심지, 대한불교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 신도라는 사실에 자긍심을 가지고, 자신과 이 뜻을 위한 기도와 보살도 실천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한국불교의 발전을 선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남동우 기자

"대불청은 명예훼손 동영상 삭제하라"

이명박 前시장 내용증명 보내

기독교단체서 제작·편집

이명박 前서울시장측이 대한불교 청년회(이하 대불청)를 상대로 '어게인 인 1907(Again in 1907) 부산'의 동영상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와 파문이 일고 있다.

'어게인 인 1907(Again in 1907) 부산'은 지난 6월 부산에서 열린 개신교 청년집회로 범어사, 삼광사, 안국선원 등의 '사찰이 무너지도록' 기도해 종교적 마찰을 불러 일으켰던 행사다.

이명박 前 서울시장을 대러한 범법적인 흥운 흥선반 호사 등은 11월 9일 대한불교청년회 김익석 회장에 보내 내용증명에서 "이명박 前시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동영상 게재 및 유포되고 있어, 이를 사실임

을 전제로 한 기사들에 대한 게재 중지, 삭제 등의 조치를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前 시장측의 내용증명 송달에 대해 대불청의 반응은 냉담하다. "자신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식의 행위로 불교계를 무시한 처사라는 것.

대불청 정준호 사무총장은 "문제를 제기한 동영상은 행사를 주관한 개신교단체에서 제작 및 편집한 것으로, 유명세가 있는 이명박씨가 행사를 격려하고 축하하는데 참여했음을 국민들에게 선전해 자신들의 행사와 기도행위 및 개신교 선교 목적에 활용된 것"이라며 "행사를 주관한 개신교단체에서 먼저 불교계에 공식적인 사과를 해야 할 일"이라고 반박했다.

박봉영 기자

동국대 차기총장 5명 입후보

보광·현각 스님, 이항우·김보환·한진수 교수

동국대 차기 총장 후보자 접수 마감 결과 보광(선화과), 현각(선화과) 스님, 이항우(경찰행정학과), 김보환(경찰행정학과), 한진수(회계학과) 등 교내 인사 5명이 입후보했다.

동국대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위원장 지홍, 총추위)는 11월 17일 동국대 본관 소회의실에서 실무위원회 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와 관련 총추위 관계자는 "외부 인사도 1명 있었으나 서류가 미비해 보완을 요구했는데, 당사자가 입후보를 포기했다"고 설명했다.

남동우 기자

이에 따라 총추위는 '후보자'에 외부인사 1인 이상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규정에 위배되기 때문에, 외부인사에 한해 23일 오후 2시까지 접수를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총추위 규정 8조 '위원장 일정 조정 가능' 조항에 따라 결정됐다.

만약 23일 오후 2시까지 외부인사가 접수하지 않을 경우 교내 인사로만 후보자를 심사한다.

한편 총추위는 24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향후 계획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불교인권상에 '대불련'

제12회 불교인권상 수상자로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가 선정됐다.

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 진관지원 한상범)는 11월 15일 대불련이 '불교의 발전과 한국 사회의 민주화 발전을 위한 역할이 인정되는 등 다양한 연대활동이 모범이 될만하다'며 이유를 밝혔다.

또 부산불교평화연대 삼일대표 황정 스님에게 공로패를 수여하기로 했다. 박봉영 기자

30일 '군승의 날' 법회

조계종 근교교구(주지 일민)는 제38주년 군승의 날을 맞아 11월 30일 오후 6시 서울 하림각에서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이번 기념법회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비롯해 일민 근교교구 주지, 계승 부주지스님과 육·해·공군 군승 등 1000여명이 동참할 예정이다. 11월 29일에는 호국원광사에서 군승회의가 열린다. 김두식 기자



성철스님 열반 13주기 추모 학술회의 1960년대 진후 상황과 성철스님의 역할

성철스님은 성전암의 동구불출을 마치고 1965년 김용사에 머무십니다. 그리고 1966년 하안거 때에는 이듬해 백일법문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운달산 법회"를 20여 일 동안 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1966년 대학생불교연합회 학생들로 조직된 구도회를 지도하기도 하였고, 1968년 연합회 학생들을 상대로 수련법회를 열기도 하셨습니다. 그간 성철스님의 사상에 대한 논의는 사회적 맥락보다는 법문과 법어와 저술 자체에 집중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운달산법회 40주년을 맞이하고 성철스님 열반 13주기를 맞이하여 1960년대 중후반의 사회적 상황에서 성철스님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백일법문에 담겨있는 불교학의 성과는 어떠하였는지 스님이 인용하신 과학적 근거들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봉암사 결사에서 20년이 지난 때에 해인총림의 방장으로 취임하신 입장에서 결사의 정신이 어떻게 총림으로 구체화되었는지를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하여 성철스님이 불교 내부와 외부에 끼친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21세기에 부합하는 불교의 실천 덕목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백련불교문화재단 이사장 원 렵



- 일시 | 2006년 11월 27일(월요일) 오후 1시
- 장소 | 동국대학교 덕암세미나실
- 주최 | 대한불교조계종 백련불교문화재단
- 주관 | 백련불교문화재단 부설 성철선사상연구회
- 후원 | 문화관광부

【일정】

- 전체 사회 - 사재영(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 1:00~1:30 개최
- 1:30~2:30 제1발표 원택스님(백련불교문화재단 이사장) 제1발표 백일법문과 근대불교학 발표 - 조영제(부산대 한국인종문화연구소 연구원) 논평 - 김영진(동국대 BK21 세계화시대불교교육연구원 Post-Doc 연구원)
- 2:30~3:30 제2발표 성철스님 법문에서의 중도와 과학 발표 - 양형진(고려대 디스플레이 반도체물리학과 교수) 논평 - 박영준(서울대 전기컴퓨터공학부 교수)
- 3:30~3:50 휴식
- 3:50~4:50 제3발표 1960년대 한국불교와 성철의 활동 발표 - 김중인(고려대 BK21 한국어문학교육연구원 연구전임교수) 논평 - 박희승(조계종 불학연구소 불학연구팀장)
- 4:50~5:30 종합토론